

주일 예배 순서

- 부활절 제7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84:1-4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14장(새 26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1번(새 16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심을 감사하며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 드립니다. 또한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 어머니의 역할과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어, 믿음의 어머니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것임을 사탄이 알기에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꾀계와 술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보고 깨달아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형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가족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는 참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히브리서 12:1-3 인도자
- 찬양(Anthem) 시온성가대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 봉 헌(offering) 353장(새 317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465장(새 407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오늘은 Mother's Day 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3. 다음 주 예배 후 본당에서 교회 미래를 위한 전교인 회의로 모입니다.
4. 다음 주 친교 후 믿음속회로 모입니다.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장석순할머니, 허춘희권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믿음, 소망속] 고린도후서 11:2-3

신앙의 위기는 외부적인 것보다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이 변질되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가장 염려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인생의 문제는 붓물 터지듯 생겨납니다. 크고 작은 일상에서 이전에는 별것 아니었던 것으로 쉽게 짜증 내고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기에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합시다.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말씀묵상〉 히브리서 12:1-3

1 이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1.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1절) 나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바라보았습니까?
2.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2-3절) 내가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 신앙생활은 결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적신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느꼈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신앙의 순수함이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의무감에 의해 마지못해 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해도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굳세게 되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없어지고 약해진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형성되었기에 거기에 끌려가다 보니 제대로 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긴 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종교적 신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영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전반을 예수님께 의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간단히 정의를 내린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은 취하고 부적합한 것은 회개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짐이 된 것이 떨어져 나가고 얽매었던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